



EU진출을 향한 매력적인 투자관문, 영국

지난 7월 15일 엔씨소프트가 런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유럽 온라인 게임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한달 전인 6월엔 휴맥스의 셋톱박스가 영국 시장에서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연이은 뉴스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게임업계를 비롯한 문화벤처 기업들의 관심이 유럽에 쏠리고 있다. 이에 또다른 신대륙 유럽의 현황과 진출전략을 차례로 알아본다. 그 첫 번째는 '유럽의 관문' 영국편이다.

글 / 최 학 (주한영국대사관 투자담당 상무관, Harkchoi@hanmail.net)

약 59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영국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무역국이다. 2002년도에 영국의 수출은 전세계 수출량의 4.4%, 수입은 전세계 수입량의 5.3%를 기록했다. 한국과 영국간의 통상관계는 확고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게 영국은 여덟 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이며,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게 해주는 주요한 시장이다. 2002년도에 한국은 영국에 43억달러의 상품을 수출한 바 있다. 통신, 선박,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서 최대 수익이 났다.

정식 무역 외에도 한국과 영국의 기업들은 합작과 제휴의 이점들을 발견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한국의 주요한 투자국이 되어 있으며, 한국 기업들과 대규모로 제휴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영국 내수시장을 겨냥하거나 엄청난 통상 기회를 제공하는 EU로 진출하는 발판으로써 영국에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발견하고 있다.

삼성, 대우, LG, 휴맥스 등이 휴대폰이나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생산 시설이나 연구 시설을 영국에 설립했다.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영국

영국은 지난 세기 1, 2차 세계대전으로 국력이 쇠락하여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우기까지 하다가 1980년대부터 다시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영국은 유럽에서 최고의 경제성장율을 꾸

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자원도 없는 인구 5900만의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번영을 유지하고 있을까?

영국의 재도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들이 바로 영국이 한국의 벤처기업에게 새로운 유럽진출의 관문이자 매력적인 투자지로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구, 면적, 자원부재 등 한국과 매우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는 영국은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로, 영국정부가 선두에 나서서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은 중도좌파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정책 대폭 완화 등 신보수주의적 성향의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지하철, 조폐창, 항공관제 등을 대상으로 한 과감한 민영화, 정부규제의 지속적인 완화와 철폐, 세율인하, 신속행정지원 시스템 등을 충실히 가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에도 정부기능의 축소, 공무원 인력감축 등을 착실히(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안정된 정치·경제 기반을 토대로 합리적이며 이상적인 기업환경을 꾸준히 지향하고자 한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만이 영국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경쟁력 강화 전문부서로 통상산업부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유럽내 최적수준인 30%를 유지, 투자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에게도 동등하게 제시되어, 자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투자유치누계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즉, 외국기업의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라를 재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은 지난 2001년 54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총 497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유럽 전체 FDI금액 중 약 18.8%의 규모로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각각 18.2%), 프랑스(11.7%) 등을 제치고 유럽국가 중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영국정부 및 지방정부는 유럽의 인근 국가와 비교해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보조금·대출금 지원, 세금감면 등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높은 기술력과 적응력, 고급 노동인구

둘째로, 세계 비즈니스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여러 민족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문화적 다양성을 들 수 있다. 글로벌시대에 있어 서로 다른 문화를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한다는 사실은 실로 큰 이점이다.

반면, 현재 런던지역에는 160여 개의 언어가 쓰인다. 다양한 민족과 언어 등 문화적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교류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국은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섬나라이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유럽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로, 광범위하고도 깊이 있는 기술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세계인구의 1%도 안 되는 영국은 전세계 R&D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170여 개의 각종 연구기관, 60여 개의 Science Park(연구단지), 기타 우선사업지역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17세기 후반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으로부터 50년 전 DNA의 발견을 포함하여 영국은 기초학문의 연구에 끊임없이 투자해왔으며 노벨상 과학부문 수상자만도 7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기술기반을 유지함에 따라 영국 국민은 전체적으로 높은 기술적응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적 정신을 들 수 있다. 영국은 사실 헌법도 없는 나라이지만 과거의 관례와 합리적 사고로서 원만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어떠한 사상이나 주의에 집착하여 대립적 각을 세우기보다는

상식에 기초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정신은 궁극적으로 전세계에 통용되는 근대 의회정치제도, 국제거래제도, 은행/보험 등의 금융제도, 각종 국제표준 등을 만들어냈다.

노사문제의 경우에도, 피고용자의 해고가 가장 자유로운 영국이지만 OECD국가 중 노동쟁의가 제일 낮은 이유는 합리적 타협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의 파업결정 투표를 상향조정,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적 책임부과 등의 노동시장 유연성 유지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식산업 지향적인 영국의 경제정책과 금융서비스, 높은 기술력을 지닌 인적자원, 유연한 노동시장 등의 인프라는 영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벤처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어 한국 벤처기업이 관심이 높은 벤처 산업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면, 세계적인 통신회사들 모두 영국에서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제품의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영국이 고성능 광통신 네트워크와 풍부한 무선통신지국, 인공위성 수신기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산업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서부터 적응, 운영단계까지 원스톱 서비스

영국 전 지역에는 각 지역개발국(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를 설치하여 해당지역에 있는 투자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과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기업이라도 이러한 투자지원단체의 전문적인 지원활동으로 투자결정 단계에서 투자후 적응 및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977년에 설립된 영국투자청(Invest-UK)은 해외 기업의 영국 투자를 지원하는 영국 유일의 정부 산하기관이다. 전세계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영국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의 지원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 투자 혹은 진출을 피하는 한국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주한 영국대사관 투자과에 접촉하는 것이 유리하다. 영국내 연락망을 통해 현장방문 알선, 관련사업에 대한 최우수 사업지 추천 및 정보 제공, 합작선 탐색, 세금, 고용 등 여러 가지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총망라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벤처기업은 이를 이용해 영국 전문가들과 함께 성공적인 영국 진출은 기본이고, 나아가 유럽 진출 성공을 일궈 낼 수 있을 것이다.

관련사이트: www.uk.or.kr / www.britishembassy.or.kr

(주한영국대사관 투자과, 02-3210-5611)